

# 중국 혁명음악의 선구자 최음파에 대하여\*

남 희 철

1. 글을 시작하며
2. 최음파를 알게 된 경위
3.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들
4. 최음파는 누구인가?
5. 중국현대음악사상의 위치

---

\* 이 논문은 김춘선 주필, 『항일전쟁과 중국조선족』 (연변인민출판사, 2015)에 발표된 필자의 글 “중국 현대혁명음악의 선구자 최음파에 대하여”를 기초로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 개 요

이 글은 홍군시기(1927~1937)의 음악가 최음파(崔音波)에 대한 연구이다. 중국의 ‘3대 인민음악가’ 중 네얼(聶耳)은 홍군시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셴싱하이(冼星海)와 정율성(鄭律成)은 8로군 시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음파는 이들보다 앞서 혁명음악활동에 뛰어든 한인음악가이다.

우선 최음파를 알게 된 경위와 확보된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음파에 대해 알아보겠다. 홍군시기에 중앙소비에트구역인 루이진(瑞金)에서 활동한 주요한 음악가로, 1931년에 장시성의 루이진에서 열린 제1차 전국노동대표대회를 경축하여 <전국노동대표대회옹호의 노래>를 작곡하였고, 노농극사의 성립을 경축하여 <노농극사사가>를, 장정도중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지휘하는 홍군 제1방면군과 쟁궈토후(張國濤)가 지휘하는 홍군 제4방면군이 스촨성(四川省) 모공(懋功)에서의 회합을 경축하여 <양대주력회합가>를, 같은 시기에 <유격대행진곡>을 작곡하였다.

중앙혁명근거지에서의 최음파는 “조선적(籟) 작곡가”, “우리의 바이올린전문가”로 소문난 열정적인 음악가였는데, 그가 문예사업에 주력했다는 점, 광저우봉기에 참가한 한인들 중 “성이 최씨라는 바이올린 연주가”는 최음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2만5천리장정도중 1935년 6월 중순 이후에 서거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현대음악사에서 “무산계급혁명음악의 발전을 위해 길을 개척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네얼(聶耳)보다 먼저 혁명음악활동에 뛰어들었고 네얼보다 적어도 2년 앞서 혁명음악을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최음파가 중국 주류음악이 개척되던 초기에 선두에서 활약한 중요한 음악가이며 무산계급혁명음악의 발전을 위해 길을 개척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주제어: 중국 혁명음악의 선구자, 홍군음악가, 홍군작곡가, 전국노동대표대회 옹호의 노래, 노농극사사가, 양대주력회합가

## 1. 글을 시작하며

중국 현대사에서 1927년 8월 1일~1937년 8월 21일 사이를 홍군시기라 하고 1937년 8월 22일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를 8로군시기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제2차 국내혁명전쟁시기, 전국항일전쟁시기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3대 인민음악가중 네얼(聶耳)<sup>1)</sup>은 홍군시기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고 쉰싱하이(冼星海)<sup>2)</sup>와 정율성(鄭律成)<sup>3)</sup>은 8로군시기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네얼은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쉰싱하이(冼星海)는 <황하대합창>을, 정율성은 중국인민해방군군가인 <중국인민해방군행진곡>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중에서 특히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난 한인음악가라는 것이 이미 일반에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언급될 최음파(崔音波)는 이들보다 앞선 홍군시기에 중앙소비에트<sup>4)</sup>구역인 루이진(瑞金)<sup>5)</sup>에서 음악활동을 하였고 네얼보다 먼저 음악창작에 매진한

- 
- 1) 네얼(聶耳, 1912~1935)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의용군행진곡>의 작곡자이다. 그의 음악작품은 선명한 시대성, 엄숙한 사상성, 높은 민족정신과 탁월한 예술성으로 중국 혁명음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모범 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쉰싱하이(冼星海, 1905~1945)는 프랑스 파리음악원에서 작곡과 지휘를 전공하였으며, 1938년에 옌안(延安)에 와서 루쉰(魯迅)예술학원 음악계 주임으로 부임한 후 <황하대합창>, <9·18대합창> 등을 작곡했고, 이후 소련에서 제1교향곡 <민족해방교향곡>, 제2교향곡 <정의의 전쟁>, 관현악조곡 <만강홍>, 교향시 <아만게르다>를 작곡하였다.
  - 3) 정율성(鄭律成, 1914~1976)은 한국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1933년 중국의 난징(南京)으로 이주, 한인항일조직인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38년 옌안(延安)에서 <옌안송(延安頌)>을 작곡하였고 후에 <팔로군행진곡>을 작곡하였는데 <팔로군행진곡>은 훗날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사용되었다. 그는 네얼(聶耳), 쉰싱하이(冼星海)와 함께 3대 인민음악가의 반열에 올랐으며 “군가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다.
  - 4) 소비에트는 러시아어 со́вет의 음역이다. 원래 러시아 제국의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민주적 자치 기구를 뜻하는 것이었다. 1927년 11월 21일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광둥성(廣東省) 하이핑현(海丰縣)에서 소비에트 정권을 건립하였는데, 1930년대에 건립된 중국의 혁명 의회들도 대부분 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에트라는 말은 중국혁명의 근거지를 뜻하는 말로 정착되었다.

한인음악가로서 중국혁명음악을 개척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관한 자료는 리위이(李偉)<sup>6)</sup>가 필자에게 보내는 친필서한과 장이성(張義生)<sup>7)</sup>이 리위이에게 보낸 편지, 우시우첸(伍修權)<sup>8)</sup> 조핀산(趙品三)<sup>9)</sup> 리버조(李伯釗)<sup>10)</sup> 등 노 홍군전사들의 회고록<sup>11)</sup>에서 찾을 수 있는 단편들이 고작이

- 5) 루이진(瑞金)은 중국 장시성(江西省)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홍군시기 루이진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소재지이자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중앙정부소재지로 2만5천리장정의 출발지이다.
- 6) 리위이 (李偉, 1914~2005)는 중국인민해방군 총 정치부 문화부 부장, 총 정치부 선전부 부장, 총 정치부 부비서장을 역임하였다.
- 7) 장이성(張義生)은 중국인민해방군 총 정치부 문공단 작가· 해방군예술학원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 8) 우시우첸(伍修權, 1908~1997)은 해방 전에 중앙홍군학교 군사교관, 홍군3군단 참모장, 중앙군사위원회 총참모부 작전부 부부장, 동북군구 참모장을 역임했고 새 중국 정부 성립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중공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겸 정보부 부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공중앙고문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냈다.
- 9) 조핀산(趙品三, 1904~1973)은 1928년 홍군5종대 16대대 정위를 지냈고 중국노농홍군 군복을 설계하였으며 홍군 “8·1극사”를 창립한 사람이다.
- 10) 리버조(李伯釗, 1911~1985)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양상쿤(楊尚昆)의 부인이다. 1926년에 소련을 유학했고 중국노농홍군에 참가하였으며 베이징(北京)시 문련 부주석, 베이징(北京)인민예술극원 원장, 중앙연극학원 원장, 중국연극가협회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 11) 리위이(李偉), 장이성(張義生)의 친필서한과 우시우첸(伍修權), 조핀산(趙品三), 리버조(李伯釗)의 회고록.



다. 때문에 최음파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최음파를 알게 된 경위와 확보된 자료들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고 이어 최음파는 어떤 사람이고 중국현대음악사에서의 위치는 어떠한가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만약 이 글이 한국 학술지에 발표되어 최음파의 지인이나 가족 또는 후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의 업적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 최음파를 알게 된 경위

1986년 12월 6일에서 9일까지 4일간 중국 현대음악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공인받고 있는 한인작곡가 정율성(鄭律成) 서거 10주기 추모음악회 및 학술토론회가 연지(延吉)에서 있었다. 이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와 민족사무위원회,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문화부의 지지하에 개최되었고 중국음악가협회 주석 리환즈(李煥之),<sup>12)</sup> 부주석 스러멍(時樂蒙),<sup>13)</sup>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문화부 부장 리위이(李偉), 시인 공무(公木),<sup>14)</sup> 정율성의 부인 명쇠쑹(丁雪松)<sup>15)</sup> 등 중국내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

12) 리환즈(李煥之, 1919~2000)는 1938년에 연안 루쉰(魯迅)예술학원에서 작곡·지휘를 배웠으며 화베이(華北)연합대학문예학원음악계 주임, 중앙음악학원음악단 단장, 중앙가무단 예술지도, 중앙민족악단 단장을 역임했다.

13) 스러멍(時樂蒙, 1915~2008)은 중국음악가협회 부주석, 해방군예술학원 부원장을 지냈고 “금종상 종신성과상”을 수상했다.

14) 공무(公木, 1910~1998)는 <팔로군행진곡>, <영웅찬가>등을 작사한 시인이다. <팔로군행진곡>은 1945년에 <중국인민해방군행진곡>으로 개칭되었고 1988년 중공 중앙준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중국인민해방군 군가가 되었다.

15) 명쇠쑹(丁雪松, 1918~ )은 중국 제1호 여성대사이며 작곡가 정율성의 부인이다. 1938년부터 연안(延安)항일군정대학, 중국여자대학에서 공부했다. 후에 중공중앙 서북국연구실 연구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외사판공실 비서장,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우호협회 부회장, 덴마크 대사, 중화인민공화국 라틴아메리카우호협회 부

하였다.

추모음악회는 3일간 진행되었다. 중앙악단, 중국가무극원, 중앙민족가무단의 예술가들과 연변가무단, 길림예술학원 연변분원, 연변방송예술단, 연길시조선족예술단 등 연지시에 있는 각 공연단체들에서 온 예술가 230여명이 이번 공연에 출연하였다. 추모음악회에서 연주된 정율성의 작품들로는 군가합창 <중국인민해방군행진곡>(공무 작사), <바다를 누비는 강대한 해군>(리지밍 작사), 바리톤독창곡 <매령3장>(천이 작사), <채벌가>(류패시 작사), <7언률시, 로산에 오르다>(마오쩌둥 작사), 가야금병창곡 <사랑스런 군대, 사랑스런 사람>(위위 작사), <생산요>(송부 작사), 녀성민가독창곡 <연수요>(송부 작사), <복산자, 매화를 읊노라>(마오쩌둥 작사), <호상곡>(초위 작사), 남성합창곡 <처녀야 뉘집으로 가느냐>(관화 작사), <벌목가>(정안순 작사), 아동합창곡 <피꿀새>(관화 작사), <직일생의 노래>(관화 작사), <푸르른 조국>(관화 작사), <우리는 행복해요>(진반 작사). 바이올린협주곡 <그대는 이 밤 어디에 계시는가>, 관현악 <승리 향해나가자>, 소프라노독창곡 <홍안령에 눈꽃 날리네>(정율성 작사), 테너독창 <연안송>(머예 작사), <백운산을 노래하노라>(류바이위 작사), 대합창 <16자령 3수>(마오쩌둥 작사), <동해어부>(김학철 작사) 등이었고 이밖에도 리정호 작사·작곡의 <조선의용군행진곡>과 <혁명가>를 정율성의 작품으로 잘못알고 연주에 올리기도 하였다.

학술토론회는 이들 동안 진행되었는데 량마오춘(梁茂春)<sup>16)</sup>의 “정율성론”, 초젠중(喬建中)<sup>17)</sup>의 “진귀한 종자 - 정율성작품속의 민간 음악적 요소에 대하여”, 탕커(唐訶)<sup>18)</sup>의 “획기적인 군가창작 - 정율성의 군가창작을 논

---

회장을 역임했다.

- 16) 량마오춘(梁茂春, 1940~ )은 중앙음악학원 중국근현대음악사 교수이다. 그는 『중국의 당대(当代)음악』, 『백년간의 음악』, 『홍콩음악가』 등의 저서와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17) 초젠중(喬建中, 1941~ )은 중국예술연구원 음악연구소 소장, 『음악연구』 부주필, 상하이(上海)음악학원 초빙교수, 중국전통음악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함”, 엔커(彦克)<sup>19)</sup>의 “군대의 혼을 펼쳐 보이고 군대의 위엄을 돋구어준 선구자”, 천쿠이지(陳奎及)<sup>20)</sup>의 “중국 신군가와 정률성”, 다이자방(戴嘉枋)<sup>21)</sup>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정비적 작품들 - 정률성의 합창곡창작에 대하여”, 쥐치홍(居其宏)<sup>22)</sup>의 “성공적인 음악의 극적 전개 - 가극 <망부운>의 음악창작 시론”, 장원강(張文綱)<sup>23)</sup>의 “우리들의 노래는 영원한 봄바람이여라 - 정률성의 소년아동가요작품들”, 진반(金帆)<sup>24)</sup>의 “정률성과 가사”, 스러멍의 “나의 전우 정률성동지”, 리위이의 “걸출한 작곡가 정률성을 그리며”, 궁무의 “신가사와 정률성”, 주즈치(朱子奇)<sup>25)</sup>의 “정률성의 노래는 영원하리라”, 탕룽메이(唐榮枚)<sup>26)</sup>의 “정률성을 깊이 알자” 등 17편의 논문과 회고록이 발표되었다.

- 
- 18) 탕커(唐詞, 1922~2013)는 1938년 팔로군에 입대하였으며, 베이징(北京)군구 잔유(戰友)문공단 작곡가, 중국음악가협회 상무이사를 역임하였다.
  - 19) 엔커(彦克, ? ~ ?)는 연안(延安)부대예술학교 분대장, 동북민주연군총부 『자위보』(自衛報) 기자, 제4야전군보위부선전대 대장을 역임했다.
  - 20) 천쿠이지(陳奎及, 1942~ ) 해군군악단 작가, 지난(濟南)군구 첸위이(前衛)가무단 작가, 해방군 총 정치부 문예처 간사, 총 정치부가극단 단장을 역임하였다.
  - 21) 다이자방(戴嘉枋, 1949~ )은 중앙음악학원 음악연구소 소장, 화교대학 석좌교수, 중국음악학원 당위서기, 중국음악사학회 회장, 교육부음악무용교수지도위원회 주임을 역임했다.
  - 22) 쥐치홍(居其宏, 1943~ )은 중국예술연구원 음악연구소 연구원 겸 『중국음악학』 편집위원, 『중앙음악학원학보』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 23) 장원강(張文綱, 1919~1990)은 1927년에 혁명에 참가했고 국립음악원 조교, 상하이(上海)중화음악원 교무주임을 역임했다.
  - 24) 진반(金帆, 1916~ )은 꾸이린(桂林)군의예비단 교원, 광둥(廣東)유격대 동장(東江) 종대 의사, 홍콩 상도(香島)중학교 교의, 화난(華南)군구위생부교육과 과장, 중앙악단 작가를 역임한 시인이다.
  - 25) 주즈치(朱子奇, 1920~2008)는 중앙군사위원회직속 정치부선전대 대장, 극단 단장, 세계평화이사회 이사,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상무이사, 중국작가협회서기처 상무서기, 국제펜클럽중국지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 26) 탕룽메이(唐榮枚, 1918~2014)는 루쉰(魯迅)예술학원 성악과 교수로 일했으며 후에 중앙민족악단 단장을 지낸 음악교육가이다.

필자는 그 학술회의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문화부 부장 리위이가 “2만5천리장정이전 중앙홍색근거지에도 최음파라는 조선적(籍) 작곡가가 있었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조선족의 첫 작곡가는 정율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중국근현대음악사저서들에서도 새 중국 성립이전시기에 거론된 한인음악가는 정율성 한사람뿐이었다. 때문에 리위이 부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말 그대로 거의 충격적이었다.

필자는 다음 날 회의 전에 리위이 부장을 단독으로 찾아가서 최음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였다. 그랬더니 리위이부장은 자신도 최음파를 직접 아는 건 아니라며 베이징(北京)에 돌아가면 조사를 더해서 알려주겠다고 흔쾌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리위이 부장이 필자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중앙소비에트구역의 제1방면군에는 작곡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둘 있었다. 한 분은 영화연출가 평충(彭冲)의 부친 평자륜(彭加倫)<sup>27)</sup> 이고 다른 한 분은 바로 최음파이다. 전에 홍군가곡집을 출판할 때 머리말을 내가 썼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노래들이 창작곡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홍군문예사를 편찬하면서 비로소 최음파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작곡한 노래가 지금도 몇 곡 전해지고 있다.

홍군이 장정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소비에트구역에서 희생되었을 것이다. 전쟁에서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필자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문화부 부장 리위이에게서 최음파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최음파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리위이 부장의 도움으로 자료들을 입수하게 되었으

27) 평자륜(彭加倫, 1906~1970)은 1930년대부터 홍군22군군위비서장, 홍군1군단정치부선전과장, 동북민주연군 총 정치부연락부장, 중공장시(江西)성위 선전부 부장, 중앙교육부 노농교육국 국장을 역임했다.

며 1987년 『문학과 예술』 제5호<sup>28)</sup>에 첫 글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족 역사발자취총서3 봉화』,<sup>29)</sup> 『중국조선족문화활동』(中國朝鮮族文化活動),<sup>30)</sup> 『20세기 중국조선족음악문화』,<sup>31)</sup> 2007년 『문학과 예술』 제1호,<sup>32)</sup> 『중국조선족음악문화사』(中國朝鮮族音樂文化史),<sup>33)</sup> 『중국조선족통사』,<sup>34)</sup> 『항일전쟁과 중국조선족』<sup>35)</sup> 등에도 글을 실으면서 최음파를 알리기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최음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 3.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들

정율성 서거 10주기 추모음악회 및 학술토론회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난 1987년 3월 21일, 필자는 리웨이 부장이 보내온 우편물을 받게 되었다. 리웨이 부장이 보내온 서류에는 필자에게 보내는 친필서한과 함께 장이성(張義生)이 리웨이 부장에게 보낸 편지, “우시우권동지 방문록”(訪伍修權同志)(난초, 장권 기록정리), “홍군초기의 연극활동”(紅軍初期的話劇活動)(조편

28) 남희철, “홍군음악가 최음파,” 『문학과 예술』 5 (문학과 예술 편집부, 1987), 56-57.

29) 남희철, “홍군의 음악가 최음파,” 『조선족역사발자취총서3 봉화』 (황룡국 주필, 민족출판사, 1989), 727-730.

30) 南熙哲, “井岡山時期紅軍音樂家崔銀波,” 『中國朝鮮族文化活動』 (金鐘國, 金昌浩, 金山德 編, 民族出版社, 1993), 462-465.

31) 중국조선족음악연구회, 『20세기 중국조선족음악문화』 (남희철 주필, 민족출판사, 2005), 45-46.

32) 남희철, “중앙혁명근거지에서 활동한 조선인음악가 최음파에 대하여,” 『문학과 예술』 1 (문학과 예술 편집부, 2007), 74-95.

33) 中國朝鮮族音樂研究會, 『中國朝鮮族音樂文化史』 (南熙哲 主編, 民族出版社, 2010), 37-38.

34)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통사』 (연변인민출판사, 2009), 486-488.

35) 남희철, “중국 현대혁명음악의 선구자 최음파에 대하여,” 『항일전쟁과 중국조선족』 (김춘산 주필, 연변인민출판사, 2015), 548-568.

산), “세월 속에 영원한 기억”(歲月磨不去的記憶)(리버조), 리위이 부장이 직접 베끼고 각주를 단 악보 <전국노동대표대회응호의 노래>(擁護全國工農代表大會), <노동극사사가>(工農劇社社歌)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는 앞서 회의 때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리위이 부장이 필자에게 보낸 친필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희철 동지!

편지는 이미 받았소. 나는 연지(延吉)에서 돌아온 후 즉시 해방군 문예사편집부에 최음파 동지의 자료를 수집할 것을 부탁했소. 그들이 찾아본 결과는 ‘아주 적은 것’이었소. 후에 아군의 문예사료 홍군권이 금년 초에 출판된다기에 책이 출판되면 책과 함께 회답 편지를 보내려고 생각했소. 그런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출판이 될 것 같소. 그저께 내가 재차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어제 편집부에서 최음파와 관련이 있는 3편의 사료문고(史料文稿)를 보내왔소. 나는 이 사료문고들이 제공한 선색을 따라 『중국노동홍군가곡선』에서 홍군가곡 2곡을 베꼈소. 편집부의 장이성 동지는 열정적으로 나에게 하나의 정황을 적어서 보내왔소. 즉 1927년 광저우봉기에 참가한 조선족동지들 가운데 최씨라는 바이올린연주가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음파일 가능성이 매우 크오. 이생 동지의 말에 의하면 그 후의 소식을 모르고 있소. 하지만 최음파가 중앙소비에트구역에서 활동한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소.

수집된 자료들을 함께 보내니 참고하기 바라오.

경례!

리 위 이

1987년 3월 21일

장이성이 리위이 부장에게 보낸 서한은 다음과 같다.

리위 부장!

홍군시기 우리군 문예사료에 조선족음악가 최음파 동지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목하 말할 수 있는 자료는 이런 것들뿐입니다. 나는 우시우첸 수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리버조 동지는 생전에 나에게 최음파의 바이올린 연주 기교가 상당했으며 늘 조선악곡을 연주했다고 했습니다. 후에 홍군이 북상할 때 최음파도 북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여러해 전에 <형장에서의 혼례>를 쓸 때 광저우봉기에 관한 자료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생각납니다. 당시 광저우봉기에 참가한 조선동지들로 구성된 연대에 성이 최씨라는 바이올린연주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는 없으나 조사과정에 어느 분이 들려준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이성

1987년 3월 19일

우시우첸(伍修權), 조핀산(趙品三), 리버조(李伯釗)는 모두 중앙홍색근거지에서 활동한 홍군간부들이다. 우시우첸은 해방 전에 중앙홍군학교 군사교원, 홍3군단 참모장, 중앙군사위원회 총참모부 작전부 부부장, 동북군구 참모장을 역임했고, 새 중국 성립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중공 중앙 대외연락부 부부장,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겸 정보부 부장, 중공 중앙고문위원회 상임고문 등을 지낸 노 홍군간부이다. 그는 상기 회고록에서 1925년 10월부터 소련에 유학한 뒤, 1931년 6월에 상해에 입국한 과정, 다시 홍콩(香港)·산도우(汕頭)·다푸(大埔)·칭시(淸溪)를 돌아 중앙홍색근거지에 도착한 과정을 말하고 나서 근거지에서의 문예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앙에서는 홍군학교를 성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장은 예젠잉(葉劍英)<sup>36)</sup>이고 허창궁(何長工),<sup>37)</sup> 덩핑(鄧萍)<sup>38)</sup> 두 군장과 여러 명의

36) 예젠잉(叶劍英, 1897~1986)은 항일시기 중앙군사위원회 참모장을 지냈고 해방전

사단장들도 조동해왔다. 하장공동지가 전교의 정치공작과 당의 공작을 주관했고, 교육장에 덩핑동지, 교무부장에 양즈칭(楊至成)<sup>39)</sup>이었다. 1기생은 4개 보병연대로 구성되었는데 각 연대의 간부는 모두 새로 조동해온 사단장 또는 사단 급 간부들이 맡았고 나는 제4연대의 지도원에 임명되었다. 제2기생으로 리버조 동지가 왔다. 그는 문예선전활동을 주관하였다. 이 때 나와 조핀산, 리버조 동지는 늘 함께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그리고 닝두(寧都)봉기이후 만담할 줄 아는 분이 조동되어왔다. 우리 몇 사람이 문예공간이었다. 그 당시 홍군학교의 문화공작은 구락부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구락부에는 상해와 소련에서 귀국한 문예인재들, 이를테면 위이공즈(危拱之),<sup>40)</sup> 스펀싱(石聯星),<sup>41)</sup> 그리고 작곡을 하는 조선동지 최음파 등이 있었다. 그들은 경상적으로 문예만회를 조직하였으며 자체로 만든 화극, 가무, 재담, 쌍황(雙簧) 등을 무대에 올렸다. 이런 만회는 매 달 2회씩 거행되었고 예젠잉 교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중략)... 나는 그때 겨우 스물몇 살이었고 각종 문예활동에 흥취가 대단했던 때였다. 나는 각종 운동에도 적극적이었지만 가장 열성적인 아마추어배우이기도 하였

---

쟁시기에 해방군 총참모장을 지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후 중공중앙 화난(華南)국 제1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국방위원회 부주석,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 37) 허창궁(何長工, 1900~1987)은 1919년 북경에서 ‘5.4운동’에 참가했고 1927년 추수봉기에 참가했으며 홍군8군 군장, 홍군13군 정위, 홍군대학 교장, 홍군9군단 정위, 항일군정대학 부교장, 동북군정대학 대리교장을 역임하였다.
- 38) 덩핑(鄧萍, 1908~1935)은 1928년 평강봉기를 지휘하였고 중국노농홍군 제5군 참모장, 제5군 군위서기, 홍군3군단 참모장 겸 홍군5군 군장,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중앙후보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 39) 양즈칭(楊至誠, 1903~1967)은 1927년에 남창봉기에 참가하고 후에 징강산(井岡山) 우수처 주임, 홍군대학 교무부장, 홍군 총 병참 참장, 동북민주연군 총 후근부 정치위원, 동북인민해방군 군수부 부장, 화중군구 군수부 부장을 역임했다.
- 40) 위이공즈(危拱之, 1905~1973)는 중국10대원수 중의 한 사람인 예젠잉(卞劍英)의 부인이다.
- 41) 스펀싱(石聯星, 1914~?)은 1932년 혁명에 참가하였고 이후 상하이(上海)항일구국연극2대 대원, 신중국극사 배우, 화베이(華北) 연합대학 연극계 교수를 역임했다.

다. 당시 홍군학교에서 공연한 허다한 작품들에 모두 출연했다. 이런 활동들이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교육에 배합하며 부대생활을 다채롭게 하는 면에서 일으킨 작용은 확실히 작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생기발랄했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 중화소비에트 제1차 대표대회가 열리던 날 열정적인 조선적(籍) 작곡가 최음파 동지가 경축의 노래를 작곡한 일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그때 흥분된 심정으로 함께 ‘로고대중의 전소대회가 개막되었다, 소비에트승리의 호포가 울리었다. 일어나라, 무장하라, 강철같은 홍군대오 백만으로 확대하고, 쏘베트를 공고히 하여.....(勞苦工農全蘇大會開幕了, 蘇維埃勝利的號砲響起了! 動員起了, 武裝起了, 擴大鐵的紅軍一百萬, 鞏固蘇維埃.....)’를 목청높이 불렀다. 그때의 웅장하고 힘 있고 호방한 노래 소리는 지금도 내 귓전에 울려오고 있다...(중략)... 소비에트구역의 문예활동은 주로 홍군내부에서 진행되었다. 그 때는 군대와 정부가 기본상 함께 있을 때여서 문예선전활동은 주로 군부대내에서 진행되었다.

우시우첸이 회고록에서 말하는 중화소비에트 제1차 대표대회는 1931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장시성의 루이진에서 열린 제1차 전국노동대표대회를 가리킨다. 대회에서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중앙정부(중양노동민주정부)의 창건을 선포하고 마오쩌둥(毛澤東),<sup>42)</sup> 조언라이(周恩來),<sup>43)</sup> 주더(朱德)<sup>44)</sup> 등 63명을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으며 마오쩌둥이 주석으로 당

42)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이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인민해방군을 창설한 사람이다. 그가 발전시킨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과 군사이론을 가리켜 모우쩌둥 사상이라 하며, 그가 맡은 주요직무가 거의 주석이었기 때문에 “모주석”으로 존칭된다.

43) 조언라이(周恩來, 1898~1976)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으로 유학하였고 중화소비에트구역 중앙국 서기, 중국노동홍군 총 정위,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 국군정치부판사처 주임, 해방군 대리총참모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전국정협 주석,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하였다.

44) 주더(朱德, 1886~1976)는 중국노동홍군 총사령,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중앙정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민혁명군 팔로군 총사령,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 중화인

선되었다.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중앙정부는 창건된 후 근거지의 인민군 중을 영도하여 무장투쟁, 토지혁명과 정권건설을 진행하여 근거지의 경제 및 문화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조판산은 중앙홍군학교 구락부 주임, 중앙노농민주정부 교육부 예술국장, 노농극사총사 사장, 중국노농홍군대학 구락부 주임, 옌안항일영화사 부주임, 중앙군사위원회 부비서장, 중공북방국비서장 등을 역임한 노 홍군 간부이다. 그는 회고록 “홍군초기의 연극활동”에서, 루이진의 문화중심이 홍군학교의 구락부였고, 장제스(蔣介石)<sup>45)</sup>의 제26노군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중국노농홍군에 넘어옴으로써 혁명역량이 크게 가강되었으며, 장제스의 제4차 포위토벌을 물리치고 푸젠(福建)성 장저우(江州)를 탈환했다는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승리의 형세 하에서 홍군학교의 연극공작임무는 몇 배로 가중되었다. 이때 화극공작에 종사하는 인원도 일부 확충되었다. 당시에 주요인원으로는 최음파라는 조선동지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의 바이올린 전문가였고, 스탄핑(石淡峰)이라는 동지가 있었는데 그는 할머니 역할을 잘해서 모두들 할망구라고 불렀으며, 그밖에도 스탄싱, 평순화(彭舜華) 등 4명의 여성동지가 있었는데 모두 상해에서 온 지식청년들이었다.

노농극사총사...(중략)... 제1기 학원생은 각 현에서 선발해온 100여 명의 총명하고 활발한 공산주의 아동단 단원들이었다. 개학식이 있던 날 총사에서는 다채로운 문예만화를 개최하였다. 음악, 노래, 해군무, 쾌반(快板), 최음파의 바이올린, 아야레(啊呀咧)의 산가(山歌)...(중략)... 그리고 당시의 명예인(名藝人) 왕염(王焱)의 대고(大

---

민공화국 부주석,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공중앙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 45) 장제스(蔣介石, 1887~1975)는 황포군관학교 교장, 국민혁명군 총사령, 국민정부 주석, 국민정부군사위원회 위원장, 중화민국특급상장, 중국국민당 총제, 제2차 세계대전동맹국중국전구(戰區) 최고사령, 중화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鼓)와 활보극(活報劇) <적의 탱크를 분쇄하다> 등을 공연하였다... (중략)... 그날 중앙책임동지들도 초청을 받고 몇 십리 밖에서 와서 그 번 문예만회에 참석하였다. 문예만회는 시종 박수소리가 끊임 없었고 관중들은 ‘앵콜’, ‘잘한다’를 연속 환호하였으며 한밤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막을 내릴 수 있었다.

리버조는 해방전에 민시(閩西)홍군정치부 선전과장, 고리끼희극(戲劇)학교 교장, 중앙소비에트정부 교육부 예술국장, 홍군총정치부 선전간사, 중공 북방국 선전과장 등을 지냈고 새 중국성립이후 중공북경시위 문위서기(文委書記), 북경시교육국 부국장, 중앙희극학원 당위서기 겸 부원장을 지낸 노 홍군간부이다. 그는 회고록 “세월 속에 영원한 기억”에서, 먼저 자신은 1931년 봄에 상하이를 떠나 6-7개월 후에 비로소 중앙홍색근거지에 도착하였고 홍군학교 정치교사에 임명되었으며, 홍군학교에 온지 두 달도 못되어 전국 노농대표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를 위해 첸장페이(錢壯飛)<sup>46)</sup>가 유화 <최후의 만찬>에서 힌트를 받고 쓴 연극과 외국연극작품 <농노>를 공연했다고 말하고 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후에 중앙소비에트구역에서는 고리끼희극학교와 공농극사를 성립하였다. 공농극사의 성립은 백구<sup>47)</sup>와 소비에트구역의 문예공작자들이 함께 세운 것이며 쉬충신(許從新), 장신(張欣), 스펀싱 등이 있었다. 노농극사에는 사가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사는 여럿이 만든 것이고 음악은 조선족작곡가 최음파 동지가 작곡한 것이다.

우리는 공농혁명의 전사  
예술을 무기로 잡고

46) 첸장페이(錢壯飛, 1895~1935)는 “홍색간첩”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후에 총참모부2국 부국장,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보위국 국장, 홍군 총정치부 비서장을 역임하였다.

47) 백구(白區)는 백색구역의 줄인 말로 장제스(蔣介石)가 통치하던 지역을 가리킨다.

소베트 위해 싸우자  
 구사회의 암흑면을 폭로하고  
 새사회의 광명을 노래하자.....

(我們是工農革命戰士  
 藝術是我們的武器  
 爲蘇維埃而鬪爭  
 暴露舊社會的暗黑面  
 歌頌新社會的光明.....)

최음파에 관한 자료에는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리웨이 부장을 통해 구한 자료들 외에 2005년 연변TV방송국 연출가 서봉학(徐鳳鶴)이 대형다큐멘터리 <혈흔>을 제작하면서 발견한 리버조의 회고록 “초지룡호(草地龍虎)”<sup>48)</sup>와 인터넷에 실린 기타의 자료들이 있다

리버조는 회고록 “초지룡호”에서 마오쩌둥이 지휘하는 홍군 제1방면군과 쟁궈토후(張國燾)<sup>49)</sup>가 지휘하는 홍군 제4방면군이 장정도중에 스촨(四川)성 모궁(懋功)에서 회합하게 된 과정을 회고하였는데, 그 가운데 최음파와 관련되는 부분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며칠 동안 웃음소리는 자전산(夾金山) 북록(北麓)을 떠날 줄 몰랐다. 중앙홍군은 설산을 지나 모궁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였는데 길 양옆에는 홍4방면군의 환영부대가 가득 나와 있었고 구호 소리와 노래 소리가 하늘을 진감하였다.

모궁은 작은 시가지인데 길은 넓적하고 길쭉한 돌들이 깔려있었다. 마을 어귀에 큰 집이 있고 대문에는 붉은 판에 검은 글씨로 “중앙노농홍군악예완(鄂豫皖)홍군30군”이라고 뚜렷하게 쓴 군기

48) “草地龍虎,” <http://www.xiexingcun.com/hongseyuedu/cdlh/mydoc000.htm>, 검색일: 2016.12.16.

49) 쟁궈토후(張國燾, 1897~1979)는 중국공산당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중국 공산당 조기지도자이다.

가 걸려있다. 문어귀에는 위풍당당한 홍군전사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검은 색 군복에 붉은 영장(領章)이 한결 선명해 보인다. 멀리서 한 여성홍군이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다 .....(중략)..... 여성홍군이 총망히 홍30군사령부대문 앞에 다가오자 초병이 친절하게 물었다.

“동지, 누구를 찾습니까?”

“홍30군 정위 리셴넨(李先念)<sup>50)</sup> 동지를 찾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누구십니까?”

“저는 중국노동홍군 총 정치부 선전간사입니다.”

초병은 뜰 안에 들어가 회보하고 나서 여성홍군을 집안으로 안내하였다.

“리정위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앉으세요.” 리셴넨은 여성홍군과 악수하면서 자리를 권하였다.

“저는 홍군 총 정치부 선전부 선전간사인데 리버조라 합니다. 청시할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총정치부 선전부 부장 누뎡이(陸定一)<sup>51)</sup> 동지는 제1, 제4방면군의 대 회합은 홍군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대 회사라면서 저더러 열렬한 환영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정치부에서 연환회(聯歡會)를 열려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 알아보라 했습니다.” 리셴넨은 만면에 미소 지으면서 대답하였다.

“짱궈토투 부주석의 명령을 받들고 부대는 이미 제시간에 전부 모궁에 도착했습니다.”

“누뎡이부장은 저에게 노래 한수를 보내면서 리정위에게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노래제목은 <량대주력회합가(兩大主力匯合

50) 리셴넨(李先念, 1909~ )은 피안난(陝安南)현위 서기 겸 피안난 소비에트정부 주석, 홍군 제30군 정치위원,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중앙집행위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 주석을 역임하였다.

51) 누뎡이(陸定一, 1906~1996)는 공청단중앙선전부 부장, 홍군 총 정치부 선전부장, 중공중앙선전부 부장, 국무원 부총리,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歌)>입니다. 이것이 악보인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리버조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량대주력군 공래산맥에서 승리적으로 회사했네.  
홍4방면군 백전백승의 영웅형제들을 열렬히 환영하세.  
중국 쏘베트운동중심의 모든 역량을 단합하여  
에헤, 중국 쏘베트운동중심의 모든 역량을 단합하여  
사천성을 견결히 적화하세!

만 여리 장정 길에 8개성을 지나며 모진 험난 겪었네.  
강철 같은 의지와 생명의 대가로 위대한 회합을 이루었네.  
전 중국을 적화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에헤, 전 중국을 적화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붉은 기 높이 들고 전진하세!

(兩大主力軍邛崃山脈勝利會師了  
歡迎紅4方面軍百戰百勝的英雄弟兄!  
團結中國蘇維埃運動中心的力量,  
暖! 團結中國蘇維埃運動中心的力量,  
堅決赤化全四川省!

万余里長征經歷八省險阻与山河,  
鐵的意志, 血的犧牲換得偉大的匯合!  
爲着奠定赤化全國鞏固的基礎,  
暖! 爲着奠定赤化全國鞏固的基礎,  
高舉紅旗前進赤化全國!)

“좋습니다. 좋아요.” 리셴넨은 박수까지 치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누가 지었소? 참으로 듣기 좋습니다. 전투적인 곡조에다 아주 멋진 노래구만요.”

“곡조는 최음파라고 하는 조선족동지가 작곡한 것이고, 가사는 누

평이 부장과 제가 합작한 것입니다.”

“좋소, 참으로 좋아, 이것 보지, 동무의 노래 소리에 매혹되어서 차물을 따라드리는 일도 깡그리 잊었구만.” 리쨌넨은 자리에서 일어나 리버조에게 물을 따라주면서 말을 이었다.

“정말로 좋은 노래를 지었소. 누명이 부장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이 노래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시오. 이 노래는 두개 방면군의 우점을 노래한 것인데 홍군대오에 널리 보급되기 바라오.”

“사람들이 모두 모였으니 내일 저녁에 연환회를 여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소.” 리쨌넨은 당장에서 동감을 표하였다.

인터넷 “청도신문”(靑島新聞)<sup>52)</sup>의 기사에 의하면 연환회에서 이 노래는 여성홍군들에 의해 공연되었다. 그리고 노 홍군간부 캉커칭(康克清)<sup>53)</sup>은 당시 이 노래가 부대 내에서 열창되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보우썩<sup>54)</sup>에서 출발해서부터 우리는 행군 길에 이 노래를 계속해서 따라 불렀다. 무대 위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자 무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4방면군의 동지들은 이 노래를 모르지만 모두 열렬한 분위기에 감화되어 머리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며 박자에 맞추어 손뼉을 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장내에는 열렬하고 생동한 단결의 분위기로 충만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신민왕”(新民主)에 실린 류버칭(劉伯承)<sup>56)</sup> 장군의 생평

52) “靑島新聞網 2006-01-13 03:38:21,” [http://qingdaonews.com/content/2006-01/13/content\\_5862113.htm](http://qingdaonews.com/content/2006-01/13/content_5862113.htm), 검색일: 2016.12.16.

53) 캉커칭(康克清, 1911~1992)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 주더(朱德)의 부인이다. 일찍 홍군 총사령부 직속 여자의용대 대장,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중앙정부 후보 집행위원, 팔로군 총사령부 정치처 주임, 중국부녀연합회 주석,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54) 스촨성(四川省)의 한 개 현(縣)

을 소개한 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홍군학교의 문화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는 바 교내의 분위기는 생기발랄하였고 가는 곳마다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홍군학교의 구락부는 과외활동의 중심지인데 상해에서 온 최음파, 스텐싱, 조핀산 등이 구락부사업을 책임지고 있었고 소련에서 돌아온 위이팡즈, 리버조 등도 이 방면의 내향들이다.

인터넷 “바이하이펑c의 버커(白海峰c의博客)”<sup>57)</sup>에 실린 글에는 “홍색중화”의 편집이었던 한진(韓進)과 최음파가 합작하여 <유격대행진곡>(遊擊隊進行曲)을 창작한 경위에 대한 한진의 회고록이 인용되어 있다. 한진은 당시 중화소비에트정부 기관보 “홍색중화”의 편집위원이었는데 그는 취추바이(瞿秋白)<sup>58)</sup>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홍군주력이 장정할 때 5명의 편집위원 가운데 런즈뽐(任質斌), 쉬밍정(徐明正) 두 동지는 홍군주력을 따라 떠났고, 쉐란즈(謝然之)는 후에 반변했으며, 편집위원회에는 실제로 있어서 나와 취추바이 두 사람만 남았다....(중략).... 그때 나는 <유격대행진곡>이라는 가사를 썼는데 모두 3절로 되었고 매 절은 4구로 된 것이다. 지금 나는 1절 가사만 생각이 나는데 다음과 같다.

55) “劉伯承—從白區到根据地,” <http://news.xinmin.cn/rollnews/2010/12/06/8123421.html>, 검색일: 2016.12.16.

56) 류버청(劉伯承, 1892~1986)은 신해혁명에 참가하여 남창봉기를 조직하였으며, 홍군 총참모장, 팔로군129사 사장, 제2야전군 사령, 군사학원 원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57) “中央蘇區慘烈大突圍,” [http://blog.sina.com.cn/s/blog\\_49a4efbc0100pjf6.html](http://blog.sina.com.cn/s/blog_49a4efbc0100pjf6.html), 검색일: 2016.12.16.

58) 취추바이(瞿秋白, 1899~1935)는 초기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이다. 그는 베이징 『조간신문』(晨報)의 기자 신분으로 소련을 방문하였다가 1935년 국민당에 의해 체포되어 그해 6월 희생되었다.

날창마다 적의 피를 묻혀라.  
탄알마다 적의 숨통을 명중하라.  
우리는 노농대중의 유격대,  
우리는 쏘베트 기치를 높이 들었다.

(我們不許一枝梭標不見血,  
我們不許一顆子彈不中敵,  
我們是工人農民的遊擊隊,  
高舉自己的蘇維埃旗幟!)

신문에 발표된 이 가사를 보고 취추바이 동지는 ‘가사가 좋으니 곡을 달아서 노농극사의 연원들이 부르게 하라’고 말하였다. 내가 ‘곡을 지을 줄 모르는데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취추바이 동지는 ‘최음파 동지에게 작곡을 의뢰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 4. 최음파는 누구인가?

이상의 자료들에서 주목되는 바는 중앙혁명근거지에서의 최음파의 음악 활동, 최음파와 광저우봉기의 관계, 최음파와 2만5천리장정과의 관계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최음파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렵듯이 알 수 있게 된다.

우선 중앙혁명근거지에서의 최음파의 음악활동정황을 살펴보겠다. 중앙혁명근거지에서의 최음파의 행보에 대한 정보는 비록 극히 단편적이기는 하나 “조선적 작곡가”, “우리의 바이올린전문가”로 소문난 열정적인 음악가이며 중앙소비에트구역 문예사업의 주력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연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주요인물로 최음파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중앙혁명근거지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중앙정부를 성립하는 전국공농대표대회에 축가를 쓰고 노농극사총사의 성립을 위해 사가를 창작한 것을 보아 중앙혁명근거지의 중요한 행사를 계기로 창작활동을 전개해왔음을 알 수 있다.

최음파의 작품들 가운데 현재까지 악보로 입수된 것은 <전국노농대표대회옹호의 노래>와 <공농극사사가> 뿐이고 리버조가 회고록 “초지룡호”에서 말한 <양대주력회합가>(누멍이, 리버조 작사)와 한진이 회고록에서 말한 <유격대행진곡>은 아직 악보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최음파의 작품이 악보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하지만 <전국노농대표대회옹호의 노래>는 4/4박자 28소절을 단일 악절로 작곡하였고, <공농극사사가>는 바르(bar)형식<sup>59)</sup>으로 작곡한 점을 미루어 그의 작곡기교가 상당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전국노농대표대회옹호의 노래>의 세련된 음악형상에서 음악적 사유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2005년에 연변TV방송국에서 대형역사다큐멘터리 <관내조선족항일투쟁사-혈흔(血痕)>을 제작할 때 필자가 <전국노농대표대회옹호의 노래>를 제공하여 연주를 재현했는데, 제2차 국내혁명전쟁시기에 나온 성악곡들 가운데 작품성이 가장 뛰어난 것 중의 하나라는 평소의 생각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최음파는 바이올린연주에 있어서는 한국음악을 자주 선택했지만 이는 그에게 한민족의 문화가 배어있었음을 말해준다) 작곡에 있어서는 서구의 혁명음악, 특히 러시아 혁명음악의 영향이 뚜렷하다. 다음으로 광저우봉기와 최음파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광저우봉기란 1927년 12월 11일 광저우에서 공산당원 쟡타이레이(張太雷),<sup>60)</sup> 수조정(蘇兆徵),<sup>61)</sup> 예팅(葉挺),<sup>62)</sup> 예젠잉(葉劍英) 등이 노동자와 병사

59) aaba 또는 aa'ba' 형식으로 이루어진 음악형식을 바르(bar)형식이라 한다.

60) 쟡타이레이(張太雷, 1898~1927)는 공산국체에 파견된 중국공산당의 첫 대사이고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광저우(廣州)봉기의 주요 지도자이다.

61) 수조정(蘇兆徵, 1885~1929)은 광저우(廣州) 노동정부 주석, 중공중앙위원, 공산국 제집행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62) 예팅(葉挺, 1896~1946)은 난창(南昌) 봉기의 총지휘자, 광저우(廣州)봉기의 노농홍

들을 인솔하여 일으킨 무장봉기를 가리킨다. 당시 예젠잉이 지도하는 교도환이 주력을 맡고 노동자적위대, 교외의 농민 3만여 명이 연합하여, 국민당군대를 격파하고 노농민주정권인 광저우공사를 건립하였다. 예젠잉의 교도환 제2영 제5련은 80여명의 한인을 주축으로 이루어졌고, 최석천이 이끄는 황포군관학교 특무영 제2련도 150명의 한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봉기를 앞두고 국제공산당에서도 소련에 있던 많은 한인 군사지휘관과 군사기술인재들을 광저우에 파견하였다. 모스크바군관학교 졸업생 양도부와 황포군관학교 교관 김산을 봉기군총지휘 예팅의 군사참모로, 모스크바홍군대학 졸업생인 리용을 교도환 지휘관 예용의 군사고문으로, 황포군관학교 졸업생 리빈을 광저우봉기 북부전선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이 외에도 황포군관학교 교관 오성륜, 쏘련공산당원 박영, 황포군관학교 졸업생 박진웅 등은 소부대를 거느리고 군벌두목을 생포하는 특수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광저우봉기에는 적어도 250여명의 한인용사들이 참전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중국에 이주한 한인들 가운데 바이올린주자가 극히 드물었고, 특히 중국 관내에서는 극히 희소했으며 공산당이 영도하는 무장부대 내에는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저우봉기에 참가한 한인들 중 “성이 최씨라는 바이올린연주가”는 최음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최음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서구혁명음악, 특히 러시아 혁명음악의 영향은 그가 소련 또는 소련계 교수에게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국제공산당의 파견을 받고 중국에 와서 광저우봉기에 참가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하며, 광저우봉기 실패 이후 늦어도 1931년에 중앙혁명군 거지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 남는다. 우시우첸(伍修權)이 “구락부에는 상해와 소련에서 귀국한 문예인재들, 이를테면 위이공즈(危拱之), 스텐싱(石聯星), 그리고 작곡을 하는 조선동지 최음파 등이 있었다”고 한 말은 최음파가 상해에서 갔을 가

---

군 총사령, 신4군 군장을 역임하였다.

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군사”는 처음과가 상해에서 왔다고 적고 있다. 다음으로는 2만5천리장정과 처음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주지하다시피 1927년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 실패한 이후 중국공산당은 깐난(장시성 남부), 민시(푸젠성 서부) 지구에 진출하여 중앙혁명근거지를 창설하였다. 중앙혁명근거지가 인구 250만에 루이진, 안웬, 신평, 광창 등 21개현을 망라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한 장제스는 선후하여 5차례나 포위토벌을 감행하였다. 1930년 11월 제1차 포위토벌에 10만대군을 동원하였고, 1931년 4월 제2차 포위토벌에 20만대군, 1931년 7월 제3차 포위토벌에 30만대군, 1932년 2월 제4차 포위토벌에 50만대군, 1933년 10월 제5차 포위토벌에 100만대군을 동원하였다. 제1차에서 제4차 포위토벌까지 중국노동홍군은 매번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장제스의 제5차 포위토벌에 밀리게 되자 중국노동홍군은 1934년 10월부터 2년 사이에 따뚜하(大渡河)를 건너 설산과 초지를 지나고 민산을 넘고 류판산(六盤山)을 넘어 산시(陝西)성북부에 이르는 대장정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진감한 2만5천리장정이다. 리버조의 회고록 “초지룡호”에 의하면 처음과는 1935년 6월 중순에 중앙홍군과 제4방면군의 회합을 경축하여 <양대주력회합가>를 작곡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처음과는 아무리 빨라도 1935년 6월 중순 이후, 특히 홍군주력이 따뚜하를 건너 설산, 초지를 지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앙홍군이 홍군부대들 중 가장 먼저 장정을 끝마친 1935년 10월을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시기이다. 처음과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음악으로 중국혁명을 격조 높이 구가한 무산계급혁명음악가이며, 우시우첸(伍修權)이 말한 “열정적인 조선적(한국인) 작곡가”<sup>63)</sup>로 중국혁명의 초기에 광저우봉기와 중앙혁명근거지에서 중국혁명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국

63) “조선적”과 “조선족”은 서로 다른 용어이다. 정울성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였기에 조선족으로 분류되지만 처음과는 중국 국적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조선적”, 즉 한국인으로 분류된다.

제주의전사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첫째, 최음파는 1927년 광저우봉기에 참가하였거나, 혹은 1930년 좌우에 상하이에서 또는 상하이를 거쳐 중앙혁명근거지에 간 홍군혁명전사이며 중국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중국혁명의 한복판에서 활약한 무산계급혁명음악가이다. 둘째, 최음파는 중앙혁명근거지에서 문예선전사업의 골간으로 활약하였고 근거지군민으로부터 “조선적 작곡가”, “우리의 바이올린전문가”로 존경받았으며 중앙혁명근거지의 크고 작은 공연에 자주 출연하여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그의 바이올린연주는 매혹적이었고 연주곡목에는 늘 한국음악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그의 작품이 오늘까지 입수된 것은 겨우 4곡이고 그중에서 <양대주력회합가>와 <유격대행진곡>은 가사만 입수되었고, 악보까지 완전하게 입수된 것은 <전국노농대표대회옹호의 노래>와 <노농극사사가> 두 곡 뿐이지만 당시에 실제로 창작했던 작품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4)</sup> 그리고 최음파라는 이름이 원명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음악에 뜻을 두면서 고친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음악의 물결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음악에 대한 그의 포부가 이만저만하지 않았고 음악공부에 기울인 열정도 대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음파는 1935년 6월 중순에 중앙홍군과 제4방면군이 모궁에서 회합한 이후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아래의 가사와 악보를 통해 구전되어 온 <전국노농대표대회옹호의 노래>와 <노농극사사가>를 소개한다.

64) 최근 이광인의 『최음파 평전』(연변인민출판사, 2016)이 출판되어 최음파의 작품이 8곡으로 확인된 듯하고 그의 행적도 일부 밝혀진 듯하다. 하지만 악곡의 출처가 분명치 않고 『동아일보』 기사의 원문을 제시하지 않아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 〔악보 1〕 전국농노대표대회응호의 노래

拥护全国工农代表大会

集体词  
崔音波曲

全 国 工 农 代 表 大 会 开 幕 了, 革  
命 胜 利 的 号 炮; 动 员 起 来 武 装 起 来, 扩  
大 铁 的 红 军 一 百 万。 推 翻 那 国 民 党, 驱  
逐 帝 国 主 义 强 盗, 完 成 中 国 的 民 主 革 命,  
争 取 社 会 主 义 的 前 途。 胜 利 属 我 们, 坚  
决 前 进, 坚 决 前 进! 代 表 大 会 万 岁! 坚  
决 前 进, 坚 决 前 进! 代 表 大 会 万 岁!

[악보 2] 노농극사사가



### 5. 중국 현대음악사에서의 위치

중국현대음악사는 “무산계급혁명음악의 발전을 위해 길을 개척한 사람”<sup>65)</sup>으로 네얼을 들고 있다. 네얼 역시 제2차국내혁명전쟁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다. 그는 1928년에 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하였고 16군에서 반 년 간 군인생활을 했으며 1930년에 윈난(云南)성립 제1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혁명활동에 종사하다가 반역자의 고발로 체포령이 내려지자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상해에서 처음에는 상점에서 점원을 지냈고 1931년 4월에 리진후이(黎錦輝)<sup>66)</sup>가 이끄는 명월가무극사에 입사하였다. 1932년 7월에 허이텐스

65) 중국예술연구원 음악연구소 중국음악사전편집부, 『중국음악사전』 (인민음악출판사, 2001), 285.

66) 리진후이(黎錦輝, 1891~1967)는 1920년대부터 <참새와 어린이>(麻雀与小孩), <꼬마화가>(小小畫家) 등 12편의 아동가무극과 <가련한 추향>(可怜的秋香), <좋은 친구>(好朋友來了) 등 24편의 아동가무표연곡을 창작한 작곡가이다.

(黑天使)의 이름으로 “중국가무단론”(短論)을 발표하여 연약하고 육감적인 음악창작의 현 국면을 타개하고 군중 속에 침입하며 신선한 예술을 창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해 8월에 베이핑(北平)<sup>67)</sup>에 와서 좌익음악가련맹에 참가하였고 11월에 상하이에 돌아가서 연화영업공사(聯華影業公司) 제1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된다. 1933년 초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좌익음악, 연극, 영화 활동에 적극 참가했으며 소련지우사(蘇聯之友社)음악소조·중국신흥음악연구회·중국좌익연극연맹음악소조 등 혁명음악조직의 주요성원이었다. 1935년 1월에 연화 제2공장 음악부 주임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제스의 백색공포가 심해지자 일본을 거쳐 소련으로 유학할 결심을 내렸다. 그 해 4월 4일 그는 일본에 도착하였고 7월 17일 해수욕을 하다가 익사하였다. 네얼은 1933년부터 1934년 사이에 무려 37수의 가곡과 4수의 민족기악합주곡을 개편하였다. 그의 가곡 중에는 오늘 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의용군행진곡>과 <대로가>, <개척자>, <부두공인의 노래>, <신녀성>, <전진가>, <졸업가>, <자위가>, <억압받는 가녀>, <매냥곡>, <비화가>, <매보가> 등 널리 애창된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영향력으로 말하면 네얼의 영향력이 최음파에 비해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을 비교해 볼만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1927년 중국무산계급혁명음악의 개척자 네얼이 윈난성립 제1사범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최음파는 이미 광저우봉기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고, 1930년 네얼이 백색구역인 상하이로 가던 해 또는 전후에 최음파는 중앙혁명군 거지를 향해 떠났다. 1931년 11월 네얼이 상하이에 있는 연화영업공사 제1공장에 취직하던 때에 최음파는 벌써 루이진혁명군거지에서 <전국노동대표대회홍호의 노래>와 <공농극사사가>를 작곡하였다. 최음파는 늦어도 1931년에 작곡활동을 시작했고 네얼은 이보다 2년 후인 1933년에 처녀작을

67) 베이징(北京)의 옛 이름

내놓는다. 두 사람 모두 제2차국내혁명 시기에 활동한 걸출한 무산계급혁명 음악가이지만 최음파는 중앙혁명근거지에서 활동을 했고 네얼은 적점구(敵占區)<sup>68)</sup>에서 활동한 점이 다르다. 최음파는 홍군의 2만5천리장정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35년 6월 중순이후에 희생되었고, 네얼은 같은 해 7월 소련으로 가는 도중에 일본의 해수욕장에서 익사하였다. 중국에서 무산계급혁명음악이 개척되던 초기에 최음파는 줄곧 혁명의 중심부에서 활약하였고 네얼에 앞서 작곡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백색구역(白色區域)<sup>69)</sup>에서 활약해 온 네얼과 쌍벽을 이루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필자는 “무산계급혁명음악의 발전을 위해 길을 개척한 사람”으로 우선 최음파를 거론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최음파와 네얼이 개척한 무산계급혁명음악의 전통이 항일전쟁시기 연안에서 센싱하이와 정율성 등 많은 음악가들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혁명음악의 전통이 결과적으로 새 중국 성립 이후 중국음악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현대음악사에서 가지는 최음파의 의미는 사뭇 중요하게 느껴진다. 최음파는 중국 주류음악이 개척되던 초기에 선두에서 활약한 중요한 음악가이며 무산계급혁명음악의 발전을 위해 길을 개척한 사람이다.

68) 장제스(蔣介石) 통치구역을 가리키는 말

69) 당시에는 공산당통치구역과 장제스(蔣介石) 통치구역을 각각 홍색구역(紅色區域)과 백색구역(白色區域)으로 칭하였다.

## 참고문헌

### <일차자료>

崔音波 作曲. <擁護全國工農代表大會>(남희철 소장)

崔音波 作曲. <工農劇社社歌>(남희철 소장)

李伯釗. “歲月磨不去的記憶”(남희철 소장)

李偉寫給南熙哲的親筆書信(남희철 소장)

南草. 張俊 記泉整理. “訪伍修權同志”(남희철 소장)

張義生寫給李偉的親筆書信(남희철 소장)

趙品三. “紅軍初期的話劇活”(남희철 소장)

### <저서>

남희철 주필. 『20세기 중국조선족음악문화』. 북경: 민족출판사, 2005.

박문일 책임편집. 『력사사전』. 연지: 연변인민출판사, 1984.

南熙哲 主編. 『中國朝鮮族音樂文化史』. 北京: 民族出版社, 2010.

郭德宏. 閻景堂. 『紅軍史』. 青島: 青島出版社, 2006.

汪毓和. 『中國近現代音樂史』.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1994.

中國藝術研究院音樂研究所. 『中國音樂詞典』. 北京: 音樂出版社, 2001.

### <논문>

남희철. “홍군음악가 최음파.” 『문학과 예술』 5 (1987).

남희철. “중앙혁명근거지에서 활동한 조선인음악가 최음파에 대하여.” 『문학과 예술』 1 (2007).

남희철. “중국 현대혁명음악의 선구자 최음파에 대하여.” 『항일전쟁과 중국조선족』 연변인민출판사, 2015.

### <인터넷>

“草地龍虎.” <http://www.xiexingcun.com/hongseyuedu/cdlh/mydoc000.htm>, 검색일: 2016.12.16.

“青島新聞網.” [http://qingdaonews.com/content/2006-01/13/content\\_5862113.htm](http://qingdaonews.com/content/2006-01/13/content_5862113.htm),  
검색일: 2016.12.16.

“劉伯承—從白區到根據地.” <http://news.xinmin.cn/rollnews/2010/12/06/8123421.html>, 검색일: 2016.12.16.

“中央蘇區慘烈大突圍.” [http://blog.sina.com.cn/s/blog\\_49a4efbc0100pjf6.html](http://blog.sina.com.cn/s/blog_49a4efbc0100pjf6.html),  
검색일: 2016.12.16.

论文摘要  
论中国革命音乐的开拓者崔音波先生

南熙哲

文是一篇关于红军时期(1927~1937)活跃在中央苏区的音乐家崔音波的论文。

众所周知,中国有三大人民音乐家。其中,聶耳是红军时期代表性的作曲家,冼星海和郑律成是八路军时期代表性的作曲家。而崔音波是比他们更早步入革命音乐活动的韩人音乐家。

首先, 本文通过对已掌握的资料进行检讨, 得知崔音波是红军时期中央根据地文艺活动的一员主将, 他为庆祝1931年在瑞金召开的第一届全国工农代表大会谱写了<擁護全國工農代表大會>, 为工农剧社的成立谱写了<工農劇社社歌>, 为庆祝毛泽东领导的红军第一方面军和張國濤指挥的红军第四方面军在四川省懋功胜利汇合谱写了<兩大主力匯合歌>, 同一时期又创作了<遊擊隊進行曲>。

接下来, 本文考证了被根据地军民尊称为“朝鲜籍作曲家”、“我们的小提琴专家”的崔音波是热情饱满的音乐家, 是中央根据地文艺事业的一员主将; 参加广州起义的韩国人中“姓崔的小提琴家”很有可能是崔音波; 崔音波是在1935年6月以后牺牲等事实。

最后, 本文对崔音波与中国音乐史上被认为“为中国无产阶级革命音乐的发展开辟道路”的聶耳做了比较, 得知崔音波先于聶耳参加了革命音乐活动, 至少比聶耳早二年创作了革命音乐作品的事实。

总的来说, 崔音波是中国主流音乐开拓初期活跃在红军队伍中的重要音乐家, 是“为中国无产阶级革命音乐的发展开辟道路”的一位先驅者。

关键词: 中国革命音乐的开拓者, 红军音乐家, 红军作曲家,  
擁護全國工農代表大會, 工農劇社社歌, 兩大主力匯合歌.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0월 30일	2016년 11월 20일 - 12월 15일	2016년 12월 15일